

궐방집의 목조가구 결구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Wood Structure of Guebangjip

이 용 준*
Lee, Yong-Jun

Abstract

The Guebangjip(궐방집) house in Gocheonri(고천리) is built of architectural materials which are not by composition but by penetrating the drilled materials as the meaning of its character. Comparing with other cases such as Japan and China which this kind of structure method is still generally used, it is hardly found any cases in Korea. However it could have been used in Korea because of the vestiges of Sogeo(巢居) and Gannan(干欄) style architecture. Apparently it is considered as the traditional building technology which is existed by succession in the certain range of time and space.

키워드 : 궐방집, 소거(巢居), 간란(干欄), 목결구
Keywords : Guebangjip(궐방집), Sogeo(巢居), Gannan(干欄), Wood Structure

1. 서론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 위치한 고천리는 오늘날 지리적으로 백두대간의 지맥 속에서 경상북도 지역과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영동지역 여러 마을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함경도와 경계를 이루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民·官에 걸쳐 오랫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교류가 있어 왔다. 지리적 특징에 따른 다양한 文化圈과의 혼합·절충은 최종적으로 또 다른 독자적인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여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적 환경과 문화적인 전통을 잘 표현하는 민가의 형태와 구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천리 민가는 각각의 상이한 구성요소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혼합·절충되어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평면의 구성방식에 따라 크게 겹집과 홑집으로 구분된

다. 겹집은 다시 두 가지의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각 실들을 배열하는 소위, 마루중심형 겹집계열과 온돌을 중심으로 각 실들이 田字形으로 배열된 소위, 온돌중심형 겹집계열이다. 또한, 민가 자체에 표현되는 물리적인 현상 이외에 일종의 비물리적인 현상으로서 고천리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만의 약속된 관습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호칭은 일종의 별칭으로 집의 위치, 외부형태의 특징 등에 따라 관습적으로 불려 오고 있다. 예를들어,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뜰집’, 몸체의 형태가 井字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우물집’ 등이 그것이다.¹⁾ 이 밖에 특징적인 것으로서는 ‘궐방집’으로 불리는 별칭이 있는데, 이것은 상술한 뜰집 및 우물집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1) 일반적으로 뜰집은 내부에 마당을 구성하는 집을 의미하지만, 고천리에서는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정회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복원사업단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구체적인 결구방법의 특징에 의해 붙여진 명칭이다. 즉, 목조건축은 가구식 구조로서 다량의 부재들이 맞춤 또는 이음 등의 다양한 결구법을 통해 골간이 되는 뼈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궤방집은 용어 자체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재와 부재를 꿰어서 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목조건축 결구법의 발달과정을 통해서 볼 때 始原的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목조건축 결구법의 체계와 그에 따른 대목가구의 계통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궤방집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목조건축 결구방법의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초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2. 용어의 의미로 살펴 본 ‘궤방집’ 결구유형 특징

목조건축은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부재(가로재)와 부재(세로재)를 짜맞추어 뼈대를 구성하는 가구식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각 부재들을 짜맞추는 방법이나 형태는 사용되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결구법이 사용되는데, 크게 이음과 맞춤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음은 길이방향으로 두 부재를 이어 접합하는 것 또는 그 자리를 말하며, 접합하는 방법에 따라 주먹장이음, 장부이음, 턱솔이음, 축이음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맞춤은 두 부재 이상이 서로 직교하거나 또는 경사지게 접합하는 것 또는 그 자리를 말하며 반턱맞춤, 주먹장맞춤, 장부맞춤, 통맞춤 등 다양한 접합방법이 사용된다(그림1 참조).²⁾ 하지만, 고천리에서 일종의 별칭으로 불리는 ‘궤방집’은 결구방법에 있어 상술한 이음과 맞춤 등의 결구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부재와 부재를 짜맞추기 보다는 구멍을 뚫어 관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부재의 한 끝이 다른 부재의 판 구멍에 통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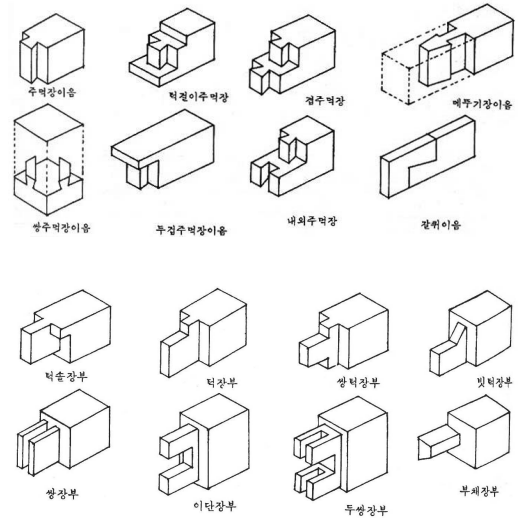


그림 1. 이음 및 맞춤의 유형
(張起仁, 木造(韓國建築大系 V), 普成閣, 2004, p85)

들어가 끼이게 한 통맞춤과 유사하지만, <사진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둥에 완전히 구멍을 뚫어 인방재로 하여금 그대로 관통시켜 결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고천리 주민들은 그 모습이 마치 “실을 바늘에 꿴 듯” 하다 하여 궤방집으로 부르는데, 결국 ‘방(枋材)을 꿰어 결구한 집’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1. 고천리 궤방집
결구(기둥과 인방재)

‘궤방’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기둥의 중방 구멍이나, 문 짝의 문살 구멍 따위를 아주 내뚫은 구멍”을 말한다.³⁾ 다시말해, <그림 1>의 각종 맞춤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재에 홈을 파내어 따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멍을 내어 뚫는 것으로 고천리의 궤방집에서 보이는 것과 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구법은 현

2) 張起仁, 木造(韓國建築大系 V), 普成閣, 2004, pp84~100.

3) 민중서림 편집국 편, 민중엡센스국어사진(제6판), 민중서림, 2006, p408.

존하는 우리나라의 전통목조건축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목조건축이라는 동일한 건축문화권 속에서 발전하여온 중국과 일본에서는 실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고시누끼(こしぬき)’의 결구방법을 통해서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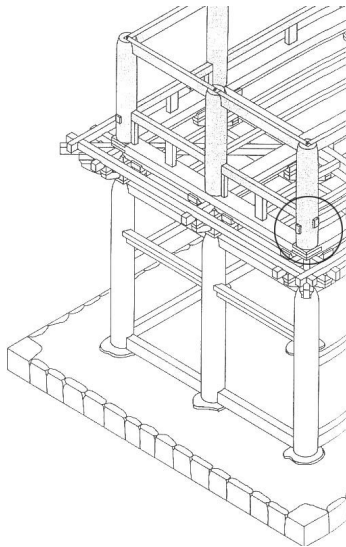


그림 2. 일본 전통목조건축 중의
ぬき(貫) 사례
(太田博太郎監修 西 和夫著,
図解古建築入門, 澤國社, 1994, p61)

〈그림2〉을 근거로 하면, 누끼(ぬき)는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부재 중 일종의 枋材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사용위치에 따라 ‘가시라누끼(かしらぬき)’와 ‘고시누끼(こしぬき)’ 등으로 구분된다. かしらぬ끼(가시라누끼)는 기둥 머리, 고시누끼(こしぬ끼)는 기둥하단에 결구하는 부재로서 우리나라 목조건축에서의 창방과 인방에 해당한다. 기둥과의 결구에 있어 양자 모두 기둥을 뚫어 관통하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기둥머리에서 맞춤이 이루어지는 반면, 후자는 기둥하단에 완전히 구멍을 뚫어 맞춤 없이 단순히 관통하여 꿰듯이 결구하고 있다. 결국, 구멍을 뚫어 부재와 부재를 꿰어 결구하는 방법은 고천리의 꿰방 집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누끼(ぬき)’



사진 2. 일본
吉野ヶ里遺跡(복원 모습)

는 한자로 ‘貫(뚫다, 통하다)’으로 표기하고 있어, ‘꿰방’에서와 같이 그 용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결구방법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실례는 일본 九州의 吉野ヶ里遺跡에 복원된 선사시대 목조건축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사진2 참조).

중국의 경우, 양자강 이남 지역의 민가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천두식(穿斗式) 대목가구 부재 중 ‘천방(穿枋)’의 결구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다.⁴⁾ 즉, 〈그림3〉을 근거로 하면, 천방은 일종의 연결부재로서 기둥과 기둥을 결속시키는데 이 때 천방은 기둥에 구멍을 뚫어 관통하여 결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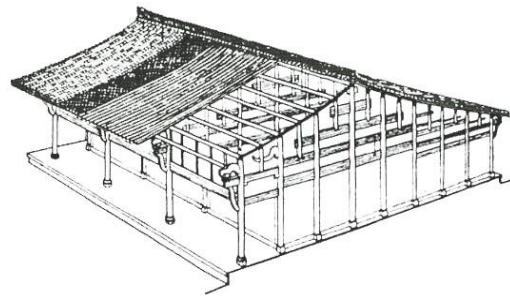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穿斗式 대목가구의 穿枋 결구도
(趙廣超, 中國木建築,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 p50)

실례로, 중국 四川省 지역의 민가에서는 천방의 결구법이 흔히 사용되는데, 〈사진3〉에서와 같

4) 중국고대건축의 기술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목조건축은 수 천년 동안의 다양한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대량식(埋梁式)과 천두식(穿斗式)이라는 두 유형의 대목가구로 정형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식은 기둥과 보를 첩첩히 쌓아 올려 삼각형의 지붕가구를 형성한다. 천두식은 모든 기둥이 직접 도리를 받치며, 각 각의 기둥은 직접 지면으로 연결되어 공간을 구성하는데, 이때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상, 하 몇 穿枋을 이용하여 상호 결구하여 안정된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 단순히 기둥몸에 구멍을 뚫고 관통하여 결구하고 있다. 또한, ‘穿(뚫다, 구멍)’이라는 용어의 의미로부터 결구방법의 특징을 살필 수 있어, 상술한 고천리의 꿩방집, 일본의 ‘ぬき(貫)’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결구방법의 계통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3. 중국 四川省 민가의 穿枋 결구

결국, 꿩방집의 결구방법은 ぬき(貫), 穿枋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정형화된 목조건축 결구법이며 그 자체 용어가 의미하듯이, 부재와 부재를 짜맞추기 보다는 단순히 구멍을 뚫어 관통시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경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결구법으로 그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고천리와 같이 목조건축물의 영조활동에 있어 일종의 전통적인 건축기술의 계승을 통해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범위 속에서 존재하였던 결구 방법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꿩방’, ‘貫’, ‘穿’ 결구방법의 특징 및 분석

전 장에서 살펴본 ‘꿩방’, ‘ぬき(貫)’, ‘穿枋’의 결구방법은 일정한 지역과 건축유형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 남방지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演變되어 온 간란식(干欄)

式) 건축에서의 다양한 형식은 그 특징을 잘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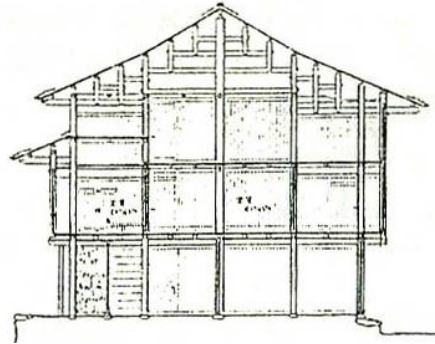


그림 4. 干欄式 건축유형(傣族 주택)
(楊大禹, 云南少數民族住屋, 天津出版社, 1997, p32)

간란식은 지면과 건축물의 바닥 사이에 일정한 높이를 띄워 두고 지은 일종의 건축유형을 말한다.⁶⁾ 주로 거주용 건축으로 사용되며,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 상·하 2개의 층으로 분층되며 상층의 네 면에는 일반적으로 대나무로 제작한 벽체를 구성하여 거주공간을 형성한다. 아래층은 빈 공간으로 구성하고 이곳에 계단을 설치하여 상층으로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층은 사람이 거주하고 하층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간란식 건축의 결구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지면에 기둥(短柱)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가로·세로의 양 방향으로 지판량(地板梁)이라는 일종의 보 가구를 구성한 다음, 그 위에 나무판을 깔아 수평의 거주공간을 형성하게 된다(그림4 참조).

5) 楊大禹, 云南少數民族住居(形式與文化研究), 天津大學出版社, 1997, p28.

“...오늘날 중국의 廣西省과 云南省, 廣東省 일대에 분포하는 壯族의 방인 중 ‘干欄’은 대나무 의미의 ‘干’과 주택의 의미로서 ‘欄’이 합성된 것으로 결국, 대나무로 결구하여 만든 주택을 의미한다...”

6) ‘간란식’ 건축유형은 ‘고상식(高床式)’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건축물이 지표면이 아닌 지상에 구성되는 형태의 특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간란식으로 통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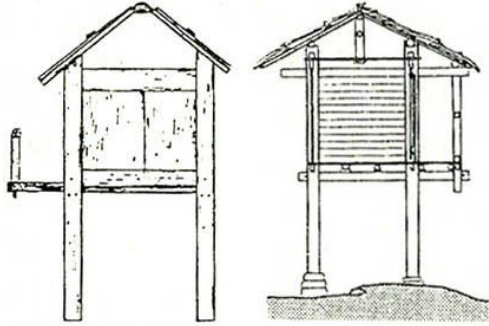


그림 5. 干欄式 나무 창고의 실예
(楊昌鳴, 東方建築研究(下冊), 天津大學出版社, 1992, p64), (좌:5-①, 우:5-②)

〈그림5-①〉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廣東省 廣州의 西漢 中期 무덤에서 출토된 나무 창고(木倉)를 보면, 일종의 간란식 건축으로서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를 띄워서 바닥판을 구성하고 그 상부에 공간을 구성하였는데, 이때 지판량은 기둥을 뚫고 외부로 돌출되어 난간을 형성하였다. 즉, 지판량이 전·후의 기둥을 관통하여 연결시킴으로서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결구형태는 현존하는 중국 남방지역의 간란식 건축에서 실물로 접할 수 있는데, 〈그림5-②〉에서와 같이 貴州省 일대 侗族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란식 나무창고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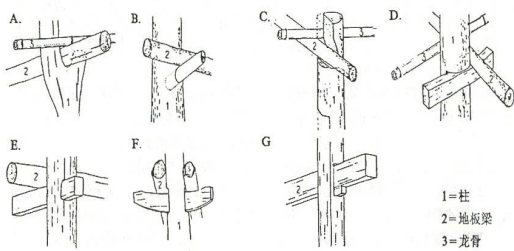


그림 6. 地板梁과 기둥(短柱)의 연결방법
(〈그림5〉과 동일, p65)

상술한 바와같이, 지판량의 연결방법에 있어 기둥에 구멍을 뚫어 관통시킨 결구법은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6〉을 근거로 할 때 기타의 것에 비해 상부의 구조물을 지탱하는데 있어 보다 안정적 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간란식 건축은 지표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부에 거주공간을 구성하므로 지표면에 구성된 건축에 비해 바람, 지진 등의 횡력에 대해 취약하게 된다. 이에, 횡력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판량을 단순히 단주에 올려놓는 것보다 구멍을 뚫어 관통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남방지역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천두식(穿斗式) 대목가구에서도 기둥 사이를 결속시켜주는 천방(穿枋) 역시 기둥을 뚫고 관통하여 결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횡력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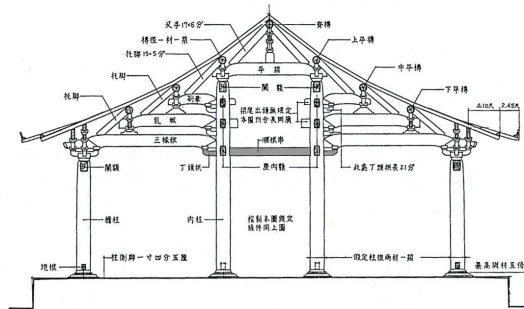


그림 7. 宋『營造法式』중 穿枋 결구
(梁思成, 營造法式註譯(卷上),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

중국의 대표적인 古代建築技術書라 할 수 있는 宋『營造法式』에는 목조건축의 설계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당시 통용되었던 건축기술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송『영조법식』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목조건축에 있어 횡력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둥과 기둥을 결구해 주는 일종의 보강재로 천방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천방과 기둥은 맞춤이 아닌 기둥에 구멍을 뚫어 천방으로 하여금 관통시켜 결구하게 된다(그림7 참조).

즉, 대부분 맞춤과 이음에 의해 부재를 짜맞추어 결구하고 있지만(그림8 참조), 천방은 구멍을 뚫어 관통하는 결구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횡력에 대한 저항력은 맞춤보다 훨씬 강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천방의 결구법은 비록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횡력에 대해 목조 가구를 안정시키는데 있어서는 어떤 결구방법 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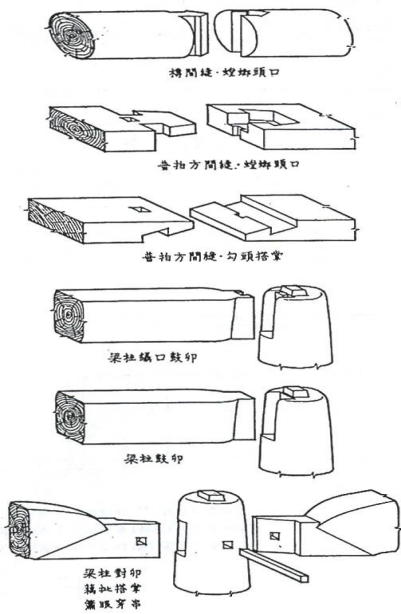


그림 8. 宋『營造法式』 중 맞춤, 이음 결구(〈그림7〉과 동일)

4. 우리나라 古代 干欄式 建築과 결구방법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천리의 폐방집 결구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란식(干欄式) 건축과 천두식(穿斗式) 대목가구에서 폭 넓게 사용하였던 결구법으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간란식 건축이 실물로 현존하지 않지만, 문헌 기록과 家形土器 등 2차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범위 속에서 유행하였던 결구 방법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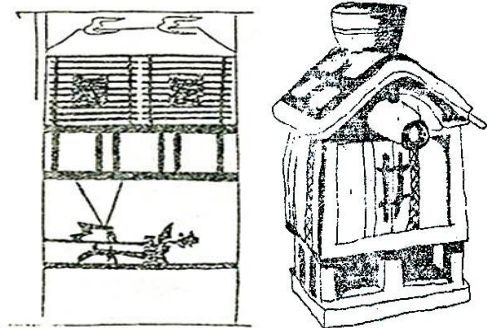


그림 9. 고구려 마선구 그림 10. 신라의 家形
고분벽화의 간란식 건축 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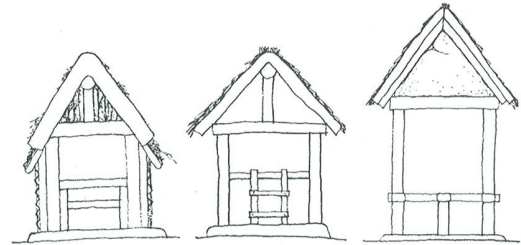


그림 11. 신라 가형토기 입면 스케치
(朴彦坤, 古代木造建築의 架構形式에 關한 研究, 弘大論叢, 第20輯, 1988, p156)

국 吉林省 輯安의 고구려 마선구 고분벽화에는 앞서 살펴본 간란식의 나무 창고(木倉)를 볼 수 있는데, 지면에 기둥(短柱)을 세우고 그 상부에 창고를 구성한 것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상층의 건축물이 보, 기둥 등의 대목가구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통나무를 겹겹이 쌓아올려 완성한 귀틀집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 현존하는 다량의 간란식 건축을 근거로 하면, 상층의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 대나무 또는 목판, 통나무 등 다양한 건축 재료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그림10〉, 〈그림11〉과 같이 신라의 가형토기를 통해서도 간란식 건축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 고대 삼국시기에 이미 한반도에서 일정기간 동안 유행하였던 건축형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헌속의 기록을 통해서도 살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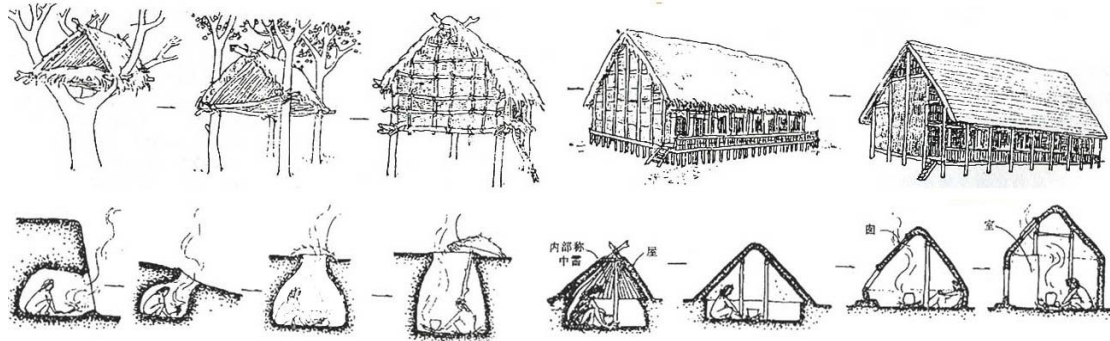


그림 12. 巢居와 穴居系列 건축유형의 발전 계통
(侯幼彬, 中國建築美學,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97, p4)(위:巢居系列, 아래:穴居系列)

있는데 『晉書』 四夷傳肅慎條에는 “숙신씨는 다른 이름으로 읍루이다. 사람들이 깊은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車馬가 다닐 수 없었고, 여름에는 소거(巢居)에 살고 겨울에는 움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름에는 소거 겨울에는 움에 기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거의 발달과정상에 나타나는 소거계열과 혈거계열의 건축유형이 모두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림12>에서 볼 수 있듯이 소거의 흔적은 결국 간란식 건축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중국 송대의 문헌 중 고려의 상황을 묘사한 『宋開慶四明續志』의 기록 중에도 “...麗人始還舊巢...”라는 내용으로 보아 한반도에 적어도 고려시기까지 소거계열의 간란식 건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하지만, 이러한 2차자료의 흔적만으로는 목조건축의 결구방법을 파악할 수 없어 상층을 받쳐주는 하부 구조체의 연결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일종의 건축유형으로서 간란식 건축이 존재하였고 그 속에서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 꿩방집의 결구방법과 같은 다양한 결구법이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그림 11참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건축의 경우 부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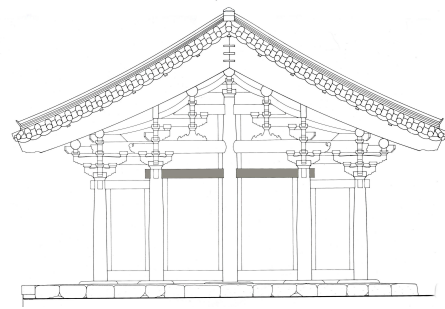


그림13. 봉정사극락전 박공면 가구도
(文化財廳, 鳳停寺 極樂殿 修理·實測報告書, 2003.)

연결방식에 있어 대부분이 맞춤과 이음을 통해 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봉정사극락전의 경우 이와 다른 방법을 보이는데 즉, <그림13>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양측 박공면의 대목가구에는 단일 부재로 된 창방이 고주를 그대로 관통하여 전·후 중고주와 결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중국의 천두식 대목가구에서 사용되는 천방과 유사한 결구방법으로서 간란식 건축의 흔적과 함께 꿩방집에서 보이는 결구상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북방의 대륙

7) 俞福海 主編, 寧波市志外編, 寧波市地方志編纂委員會, 1998年, p158.

문화와 남방의 해양 문화가 혼합되는 지역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에, 각 각의 두 문화요소가 개별적으로 공존하기도 하며, 또한 상호 절충되면서 독특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민가에서 나타나는 북방요소의 온돌과 남방요소의 마루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데, 소거 즉 간란식 건축이 바로 이러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간란식 건축은 과거 한반도에 유행하였던 하나의 건축 유형이었으나,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상황에 의해 사라지거나, 변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결구법 또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거나 일부는 변용되어 사용되어 왔을 것이며, 고천리의 꿩방집에서와 같이 부분적인 흔적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다.

5. 결론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고천리의 꿩방집은 그 자체 용어의 의미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부재를 결구하는데 있어 부재와 부재를 짜 맞추기 보다는 단순히 구멍을 뚫어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결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구법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결구법으로 그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고대의 소거(巢居)와 간란식(干欄式) 건축의 흔적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존재하였던 결구 방법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목조건축물의 영조활동에 있어 일종의 전통적인 건축기술의 계승을 통해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범위 속에서 사용되어 왔던 결구 방법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 속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원시적인 결구법으로 복잡한 작업이 필요 없이 손쉽게 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가는 대부분 거주자들에 의해 직접 조영되므로 용

이한 결구방법이 취사선택 되었을 것이다. 둘째, 작은 단면의 부재를 사용하여 안정된 구조를 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맞춤 등의 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목재가 필요하지만, 꿩방집의 결구방법은 단순히 구멍을 뚫어 관통하여 결구하는 것으로 작은 단면 목재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결구법이다.

참고문헌

1. 梁思成, 營造法式註譯(卷上),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
2. 楊昌鳴, 東方建築研究(下冊), 天津大學出版社, 1992
3. 太田博太郎監修 西 和夫著, 凶解古建築入門, 漳國社, 1994
4. 尹張燮, 韓國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5. 楊大禹, 云南少數民族住屋, 天津出版社, 1997
6. 侯幼彬, 中國建築美學,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97
7. 朴彥坤, 古代木造建築의 構造形式에 關한 研究, 弘大論叢, 第20輯, 1998
8. 趙廣超, 中國木建築,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
9. 文化財廳, 鳳停寺 極樂殿 修理·實測報告書, 2003
10. 張起仁, 木造(韓國建築大系V), 普成閣, 2004
11. 민중서림 편, 민중옛센스국어사전(제6판), 민중서림, 2006

(接受: 2006. 9. 20)